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6월 4일(주일) 제1445호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차세대 '어드벤처' 시작!

6월 10일까지 교사강습회,
7월부터 차세대 여름캠프

2023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시작됐다. 올해 차세대 어드벤처 교사강습회는 5월 27일(토)부터 6월 10일(토)까지 이어진다. 5월 27일(토) 오후 1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6월 3일(토)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 6월 3일(토) 오전 10시 대전온누리교회 본당, 6월 6일(화) 오후 1시 수원온누리교회 본당, 6월 10일(토) 오후 1시 부천온누리교회 본당, 6월 10일(토) 오후 1시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주제강의 및 기도회, 찬양 강습 등을 한다. 교제 강습은 영역별로 한다.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는 예수님의 꿈아이(영유아부, 유치부)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과 파워웨이브(중고등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 및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열린다.

/ 홍하영 기자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6월 21~22일 각 캠퍼스, 23일 서빙고 연합기도회
유기성 목사, 이한영 부총장,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이 막 오른다. 6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6월 21일과 22일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6월 23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에서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를 한다.

21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광야에서 동행하다', 22일 이한영 부총장(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광야에서 배우다', 이재훈 담임목사 '광야에서 부르짖다'를 주제로

설교한다.

2023 마리아행전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선착순 마감하기 때문이다. 6월 3일과 4일 주일예배, 7일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서와 함께 회비 1만 원을 내면 된다. 온라인 및 전화 접수, 행사당일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달려라풍당' 시상식

15일 오후 7시 서빙고 경찬홀

'2023 달려라풍당'이 막을 내렸다. 올해 '달려라풍당'에는 성도 3688명이 참가했다. 캠퍼스별로 진행한 '달려라풍당데이'에는 성도 2140명이 동참했다.

'달려라풍당' 시상식이 6월 15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과 온라인(Zoom, 유튜브)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 링크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최장 거리상(종목별 누적기록이 가장 높은 참가자) 5명, 겔럭시워치5, 최고나눔상(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참가자) 1명, 스마트 TV, 차세대어린이상(달려라풍당에 참여하고 후원한 어린이 추천) 5명 어린이 자전거, 그룹상(1인 평균 운동 거리가 가장 높은 그룹, 다수 참여 그룹, 공동체 참여 그룹 중에서 선정) 등이다. 최고나눔상 시상품은 수상자 이름으로 '풍당교회학교'에 기증한다.

/ 홍하영 기자

한누리 20주년 연합예배

6월 4일 오후 2시 Acts29 비전빌리지 박모세홀

한누리 20주년 연합예배를 6월 4일(일) 오후 2시 Acts29비전빌리지 박모세홀에서 드린다. 한터공동체(서빙고), 하나공동체(양재), 한사랑공동체(부천), 복사랑공동체(남양주), 한누리공동체(대전), 하나원사역팀 소속 성도와 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누리 20주년 연합예배에서는 송영동 목사(한누리 담당)가 사회를 보고, 이기훈 목사가 '새로운 정체성'을 주제로 설교한다. 하나공동체 찬양팀 찬양과 이상을 장로 대표기도, 한터공동체 특순, 김춘택 팀장 '한누리 20년 역사 소개', 한누리어워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부 축제에서는 푸드코트, 야외 미니올림

픽, 저녁식사 등이 이어진다.

'한누리'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미래의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팀이다. 2003년 6월 '통일한국의 모델 교회를 세우자'는 목적으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드린 하나공동체 예배가 그 모태다. 2005년 5월 탈북민 종합회관 건립, 2010년 5월 탈북민 종합회관 이전 및 개명(한터), 2016년 한누리사역팀으로 전환했다.

송영동 목사는 "20년 동안 탈북사역을 지속적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며,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한누

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신생아 축복기도 재개

매월 셋째 주, 6개월 미만 신생아

6월부터 신생아 축복기도를 재개한다. 매월 셋째 주일예배에서 한다. 6개월 미만 신생아가 대상이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신청하면 된다.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집을 바라보며 건축가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옷을 보며 그 옷을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듯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하고 완벽해 보이고 무한해 보이는 창조세계를 대하면서 우리는 왠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창조 세계가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3일과 6일째 땅으로부터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내게 하였고,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종류대로, 온전하게 창조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반복되는 말은 ‘그 종류대로’입니다.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된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심포니처럼 다양한 종류들이 하모니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과 풍요로움이 서로 위협하고, 대립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종류대로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하모니를 깨뜨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함이 복잡함이 되고, 풍성함이 분열과 대립의 근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창조주를 대체하려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으므로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대로 창조된 풍성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고 다양함과 풍성함을 설명할 때 우연히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이를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하며 다양한 종류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은 다양한 종류 생명체의 유전자 가운데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쥐의 유전자가 80% 정도 일치하고, 침팬지의 경우는 사람과 98% 일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공통된 인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공통 조상이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침팬지에서 2%가 더해진 변이로 인해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이 한 가지 믿는 단어가 있습니다. ‘LUCA(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입니다.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진화론의 시조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아마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유기적인 존재가 처음 살았던 원시적인 형태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추측’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언한다’가 아니라 추측한다고 말했던 다윈의 말을 수많은 과학자가 정설이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학을 근거로 진화론을 주장하면 비전문가들이 반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땅에서 식물과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자녀들은 학문의 이름으로 신앙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다양하게 된 원인을 ‘창조유전체학(Generative Genomics)’이라는 이름으로 밝혀내는 흐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각 종류 생명체의 공통적인 유전자 외에도 다른 생명체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고유한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창조 기원의 고유한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유전자가 99% 있더라도 1%가 자연 상속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창조 기원의 유전자, 분리된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를 증거하는 근거가 됩니다. 창조 유전체학에 의하면 다윈이 주장한 LUCA(모든 생물의 공통조상)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첫째, LUCA가 자연 상속으로 주어지는 공통속성을 모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LUCA가 다른 종류와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 기원의 유

전자를 모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LUCA 즉, 최초의 단세포 자체의 출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화가 옳은 것처럼 설명해도 “진화가 시작되는 첫 번째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질문에 “우연히”라고 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근거 없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LUCA에 돌연변이가 계속되어 새로운 종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인간이 제3의 종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이를 통해 또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움직인다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 시도하는 설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를 주장하려고 모든 종류의 공통적인 유전자가 있으므로 공통 조상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고, 그 종류 내에서 환경과 상황, 기후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면서 일어나는 변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종류를 뛰어넘는 일은 창조기원의 유전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주류가 되는 과학도 큰 흐름에서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는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한다고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계속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생물학과 물리학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종류대로 온전하게 창조된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파괴된 질서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온전케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지금 현상과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세계관으로 과학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과학도 올바른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이유

왜 하나님이 일부분은 공통의 유전 인자를 가지게 하시고, 일부분은 고유한 창조 기원의 유전자를 가지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네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창조 세계의 다양함을 보고 인간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식물과 동물의 종류가 존재할까? 인간이 모두 발견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을 책임 있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로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유전 인자를 가진 자는 많은 책임을 가졌기에 그것보다 적은 유전 인자, 적은 기능을 가진 피조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 인자를 알아야 합니다. 1차원에서는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2차원에서는 1차원을 이해할 수 있고, 3차원에서는 2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많은 기능을 가진 유전 인자들에게 피조 세계를 통치할 책임을 부여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게 명백한 만큼 하물며 인간은 그 이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들은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새보다 많은 능력과 귀한 유전 인자로 창조하신 인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넷째,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어느 것도 자체적으로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모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그 자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기에 반드시 어떤 결함이 있으므로 그 결함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책임, 가장 큰 능력,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신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를 학문의 이름으로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인간의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이 세계가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조장법’

오늘날 한국 국회 다수당의 입법 방향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쪽이다. 성적지향의 다수인 이성애자에 대해 소수자인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들과 성별정체성의 다수인 생물학적 남녀 양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대해 소수자인 트랜스젠더 및 성별비순응자(Transgender & Gender Nonconforming, TGNC)들은 남녀가 아닌 수십 가지 다른 성별을 만들어내 소수자들을 정상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소수자들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된 서구에서는 교회에서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절한 목사가 장기간 송사에 휘말려 고생했고, 동성 부부의 모습을 담은 결혼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성소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심각한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교육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률로 지지하는 소수자들을 앞세워 정치적

결집자들을 제거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체성 정치로 볼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들만을 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를 차별하는 ‘차별조장법’이라 이름 붙이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들은 또한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미명 하에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을 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

다. 또한 정상가족은 다수이고 주류이며, 비정상 가족은 소수이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야 할 또 다른 소수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유럽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청교도들을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일부일처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을 통해 생육, 번성, 충만의 창조사역을 위임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자연에 대

견해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입법 활동들은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성-생명-결혼-가정’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다. 성을 해체하고, 동성 성행위를 정상으로 격려하며, 낙태와 안락사를 조장하고, 느슨하고 자유롭게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든지 관계만 하면 가족이라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지켜오던 기본가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우리 인생 전반기 삶의 행복은 부모님의 결혼관계와 그 안정성에 의존한다. 많은 조사에 의하면 생물학적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적다. 결혼한 부부는 자신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인생 후반기 삶의 행복은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부부 관계와 그 안정성에 의존한다.

인간은 모두 이해받고 격려받기를 원한다. 특히 아프거나 심한 역경을 만날 때 더욱 그렇다. 친밀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아닌 곳에서 그 위로를 찾기 힘들 것이다. 결혼의 신실함, 안정성, 거룩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이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 결혼, 가정을 해체하려는 세력에 대해 온 힘을 다해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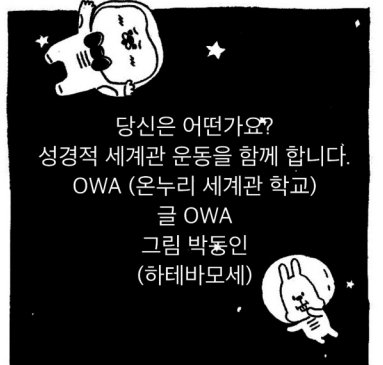
“결혼의 신실함, 안정성, 거룩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이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가치이다. 그리스도인은 온 힘을 다해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하는 기존의 결혼제도다.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세금혜택을 주고, 자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법의 취지는 정상가족이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며 동거, 일부다처, 일처다부, 결혼조혼, 근친혼, 동성혼, 동물과의 결혼, 심지어 속소를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느슨한 모든 관계까지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관계가 건강한 가족인가? 오히려 ‘비정상가족 양산법’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

한 청지기 사역을 맡기셨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성적인 간음으로 경계하셨다. 청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델을 훼손하는 모든 압력에 대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고, 그 가치는 미국의 보수주의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보수와 진보를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 이혼과 결혼에 대한 견해, 낙태와 안락사 같은 생명에 대한

카툰으로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

OWA툰 no.4 (based on 22년 송구영신예배 설교)



‘생활동반자법안’의 부정적 영향

비혼동거,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위험성



이상현 교수
(숭실대 법대
국제법학과)

서구에서 동거확산, 혼인율 감소,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를 통해 혼인 가족질서를 뒤흔들어 궁극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성인들의 육구를 위해 출생아동의 학대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비혼동거

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정의 달 5월 전후로 발생했다. 바로 ‘생활동반자법안’이다. 이 법은 케이트 파우스트 작가(《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창조 설계인 남녀 간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심)을 회피하고 손쉽게 함께 살고 손쉽게 헤어질 수 있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육구 충족을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령에서도 동성결합이나 동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었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어떤 국제조약에서도 이를 합법화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비혼동거를 가족과 유사한 관계로 법적 보호를 하게 된다면 동성 커플은 결합의 정당성을 얻고, 이성 커플들은 부담스러운 결혼을 회피하고 감정에 기반해서 지속적이지 못한 관계를 선택하도록 권장 받는 형국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당사자들에게는 헤어짐의 아픔, 아동에게는 정서적 상처, 육체적 방임 및 학대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며, 동성 간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해 동성혼 합법화 수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생활동반자법의 문제점과 그 사례

남녀 간 혼인은 감정적, 의지적 결단에 기반해 이루어지며 동거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성격적 법제도다. 현재 한국의 가족법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유책주의 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 같은 제약과 절차를 뒤서 이혼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는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의 의사표시 신고를 통해서 바로 해소되며 숙려기간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웬디 매닝 교수)에 따르면, 평균 동거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혼인한 경우에도 혼전 동거를 경험한 이들이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파경 위험이 30% 높다. 이는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거의 불안정성은 혼인 중 출생자가 12살 될 때까지 부모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75%에 달하는데



“동거합법화 법안의 문제점들을 주변에 알리고
커플이 동거를 선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자.
거룩한 혼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세대 양육을 위해
최적의 환경인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

반해 동거 관계 중 출생자의 경우 부모의 동거 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33%에 불과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동거가 합법화되면 동거문화 확산은 시간문제이며, 동거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 한 쪽과만 같이 살거나 아니면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의 새로운 동거관계 성인 파트너와 함께 살게 된다. 새로운 성인 파트너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외국의 사례들은 자녀들이 혈연관계 없는 새로운 성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차별·방임을 겪는 일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 케이트 파우스트에 따르면, 딸을 둔 엄마가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남자 성인과 동거하는 경우 미국의 통계는 방임·학대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어린 이남 직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폐지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반면 스스로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이 동거를 합법화하고 확산시켜 동거 관계에서 출생할 아동들이 겪게 될 정서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에게도 정자기증, 보조생식술을 통한 자녀 출생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내렸다. 혼인의 중요성, 자녀의 복리 그리고 동성 간 결합 관계에서 자녀 출생의 문제 등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는 경우 비혼 출산뿐만 아니라 여성 간 동반자 관계, 남성 간 동반자 관계에서 정자기증, 난자기증, 시험관 아기 등을 통한 출생이 허용되면서 이렇게 출생한 자녀의 정서적 건강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정자

거래, 대리모 허용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 결합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되는 바,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 및 입양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는 이미 이렇게 출생한 이들 중 상당수가 생물학적 부 또는 모를 찾아 나서며(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생각보다) 유전적으로 상품화된 개체라는 번민으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유전적 우수성을 가진 사람의 정자가 주로 선택을 받기에 이들은 많은 수의 정자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는 이복형제 자매가 작게는 10명 많게는 수백 명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출생한 이들의 근친혼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 기증자의 신원을 출생자들에게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자가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충격적인 것은 대리모, 난자 기증을 통해 출생한 아동을 범죄 등에 노출시키는 부 또는 모도 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될 경우 동거 문화 확산으로 인한 혼인율 감소, 동거비율 증가와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 궁극적인 출산아 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민결합제도(PACS)는 1999년 동성혼의 대안으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는데, 이성 간 동거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 결과 2020년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성 간 결합이며, 시민결합을 등록한 커플 수가 혼인한 커플 수를 훨씬 넘는다. 2021년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3.5%에 달했다. 동거관계에서는 자녀 출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18세~39세 PACS 커플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데 반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을 정도로 혼인관계 내의 출생 자녀 수가 더 많다. 그런데 혼외출생자의 출생 비율이 혼인 중 출생 비율보다 많다는 점은 동거의 확산 정도(이성간 PACS 성립 건수 2000년 대비 2017년 약 10배 증가, PACS로 미등록되지 않는 동거도 급증)를 나타낸다. 1.9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전체 출생아 수는 2016년 들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1999년 출생아 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결합 도입이 출산율 증가와 무관하다는 분석과 함께 혼인을 대체해버린 시민결합제도에 대한 비판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동거합법화 문제점 인식하고,
주변에 알려야 한다!

동거의 합법화는 결국 동성혼을 원하는 이들의 열망(?)을 성취시켜 줄 개연성을 현저히 높인다. 최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을 요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남성 동성애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피부양자 자격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재해보상법, 나아가 주택보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등에도 배우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성 간 결합이 확대될 것이고, 동성혼 합법화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동성결합을 합법적으로 보장한 대다수 국가들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의 도입과 함께 신앙과 양심상 남녀 혼인과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이들과 단체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동성 간 결합에 대한 법적 혜택 제공을 위해 2004년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을 도입한 영국은 2010년 평등법, 2013년 동성혼인법, 2018년 시민동반자법 개정(이성간 동반자 허용) 순으로 혼인가족관계가 변화하면서 동성혼 거부법 법적 제재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2013년 동성커플에게 연방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판결을 낸 후 2년 만에 모든 주에서 동성혼인을 인정하는 판결(오버게펠 대 호지스)이 나왔다.

사랑하는 커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동거합법화 법안의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주변에 알려야 한다. 교제하는 커플이 동거를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거룩한 혼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인 결혼을 준비해 주기를 부탁한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법부 온라인 반대 청원이 나오면 꼭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부탁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된 것과”(벧후 3:5)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벧후 3:5~6).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지구)의 창조, 노아시대 대홍수 심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경고한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땅은 형태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창조 셋째 날을 묘사한 1장 9절은 하늘(대기권,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물이 드러났다고 표현한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다가 물러나면서 물이 드러났다는 것은 형태가 없던 땅이 물 안에서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 둘째 날 하나님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게 하셨다. 둘째 날 하나님은 ‘

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기권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셨다. 아마 이때 물도 창조하셨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처럼, H₂O라는 단순한 분자에서 산소와 질소 등으로 구성된 대기권, 소금이 포함된 바다, 복잡한 성분을 가진 땅을 창조하신 것이다.

‘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있다. 약한 것 같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고, 거대한 물은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 물은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가진 눈이 되어 포근한 겨울을 선물하기도 한다. 또한 물은 고체(얼음)가 되었을 때 부피가 증가하면서 비중이 낮아져 물 표면부터 얼음이 형성된다. 그래서 물속의 생명체들이 겨울에도 살 수 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뤄진 매우 단순한 분자이지만, 강한 수소결합을 이뤄서 다른 물질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물과 같이 단순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은

끓는점이 매우 낮아 특별하지 않다면 섭씨 68도에서 끓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물은 큰 표면장력을 가져 모세관 현상이 가능해서 식물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 물은 용해도가 엄청나게 높아 지구상의 웬만한 물질은 다 녹인다. 그래서 생명체에 물이 없다면 소화를 시킬 수 없고, 체내에 들어간 물질들이 전달되며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없다. 이처럼 물은 생명을 살리는 신비스러운 물질이고, 아름다움도 선물하면서 또한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겔 43:2, 계 1:15)로 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물은 생명체에 필수적인 물질이기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 존재하면 과학자들은 마치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러한 진화론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물질들이 저절로 물에서 생길 수 없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모두 녹아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주에 거대한 물이 있다는 점이다. 2011년 NASA는 지구의 모든 물보다 140조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퀘이사(quasar)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우주에 있는 물이라고 해석하는 창조과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창조 주간에 이뤄진 일들은 지금의 물질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초월적인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완성된 모습으로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물을 창조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하셨고, 지구의 많은 물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리고 우주에서 발견되는 물은 하나님의 무소부재(無所不在) 하심을 나타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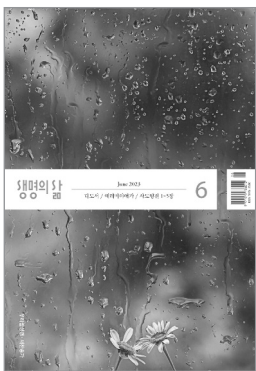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고난 중의 소망, 주님의 인자와 긍휼

6월 5일~6월 11일
<예레미야애가>
1:12~3:39



묵상포인트 1: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롬 6:23). 유다는 우상숭배와 끊임없는 죄악으로 철저히 패망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의 결과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 속에서 유다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묵상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흑독한 징계 앞에 예루살렘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줄 자도, 위로할 자도 없다. 동맹국들은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수고와 노력도 모두 헛될 뿐이다. 하나님을 멀리한 예루살렘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 깊은 상실로 탄식한다. 택하신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애타게 기도한다. 죄로 몰락한 유다를 보며 기뻐하는 대적들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

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과 원수 된 결과는 파괴와 부끄러움과 죽음이다. 유다의 참혹한 패망은 미래 세대의 소망을 어렵게 했다. 이에 예레미야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외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유다의 패망 앞에서 예레미야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강권하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니 유다의 모든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또한 죄와 우상숭배로 오염된 성전과 성벽, 절기와 안식일까지 모조리 사라졌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는 유다를 더욱 타락시켰고, 결국 예루살렘은 잿빛이와 어린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군대의 침공 때문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말씀의 성취다. 예레미야는 기진해 죽어 가는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들라고 강권한다. 참된 눈물의 회개 기도가 말로 회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묵상포인트 3: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고통뿐인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한다. 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나눔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자.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져 죽은 자와 같은 유다 백성의 처지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나 온갖 고초와 재난을 겪으면서도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멍에를 메우신다. 징계를 당할 때 불신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을 버리고, 그분이 주실 회복을 겸손히 기다려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찾는가? 유튜브나 참고 서적, 전문가의 조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시고, 감춰진 죄를 드러내 회개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구하자.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무조건 잘될 거라는 반쪽짜리 긍정 메시지만을 바라지는 않는가? 위로와 평강만 바라는 말씀 묵상에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말씀 묵상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 ▶고난과 징계 뒤에는 택하신 백성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지금의 역할과 환경 가운데서 잠잠히 인내하며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내를 위해서!

오랜 병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힘들어하는 아내 이금자 권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기생충 망상증’(Delusional parasitosis)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곤충, 벌레, 진드기, 이, 벼룩 등의 수많은 벌레가 피부와 인체 구멍을 통해 침입했다고 믿는 질병입니다. 아내는 머리와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고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도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때때로 숨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요로염증도 있습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금자 권사에게서 벌레마귀(기생충 망상증)가 떠나가라!”

아내를 위해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기생충 망상증이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내의 머릿속에 있는 벌레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평안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최원도 집사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삶의 밸런스 ‘3 · 3 · 3’

“연차가 쌓이고 회사 업무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교회 봉사나 공동체 활동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나이 62세, 아내와 두 아들, 교회 직분 장로, 직업은 식품 제조업체 운영. 이것이 나의 간단한 이력이다. SNS도 별로 안 하고, ‘라떼’(옛날 무용담)를 사랑한다. 끈대 중의 끈대다.

내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내가 속한 순은 20대부터 60대까지가 있는 순인데, 그중에서 우리 부부가 가장 늙었다. 우리 순에는 곧 태어날 아기 포함 아이가 7명이다. ‘가디언스’로 섬기는 한동대 학생들 10여 명과는 Zoom으로 자주 만나고, 포항에 내려가서도 만나는 데 젊음 그 자체다. 멘토로 섬기는 청년부 길공동체는 ‘멘티그룹’이라기보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는 젊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다.

누구나 그렇듯 나에게도 삶의 기준이 있다. 그중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삶의

밸런스’다. 나는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 교회, 일터에 시간이나 재정, 생각을 ‘3·3·3’ 비율로 분배한다.

장로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회일 거라고 추측하겠지만 아니다. 첫째는 가정이다. 결혼 32년 차지만 지금까지 아내와 싸웠던 기억이 없다. 여전히 달걀 돌게 사랑하며 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스킨십을 한다. 장모님께서는 그런 우리 부부를 ‘재혼부부’라고 놀리시곤 한다. 권사인 아내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지만 결코 무능하거나 배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정말 탁월하다. 결혼 전에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고,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 전업주부의 삶을 택했다. 친가와 처가에 믿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줬다. 아내로 인해 양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두 아들도 여느 집 딸들보다 살갑다. 늘 대화가 그치지 않는다. 나는 아들이 정말 좋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데서 지금도 가족여행을 자주 간다.

혹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0년 제조업 하면서 공장이 수해로 두 번 잠기고, 화재를 세 번 겪었다. 직원 세 명으로 작게 시작해서 5톤 화물차에 직접 물건을 싣고 배달을 10년 넘게 했다.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세 번이나 건강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기도 했다. 부모 위기는 셀 수 없이 겪었다. 이 나이 되도록 골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술은 말술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끊어서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도 나는 재밌다. 우리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20명 정도 있다. 그들과 함께 겪은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은 안산M센터에 가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다. 지금도 종업원 60명 정도로 작은 기업이지만, 한국인 근로자 3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이고,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도 여러 명이다. 어떤 직원은 집보다 회사가 좋다고 한다. 그 직원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월급도 적고 잘나가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회사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제법 있다. 예수님은 성전에 그리 오래 계시지 않았고, 삶의 현장에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면 교회 공동체에 할애하는 시간을 20% 정도 줄여보기를 권한다. 목회자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성도의 직장에 방문하고, 이웃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거라 예상된다. 성도들의 시간을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사회에 돌려준다면 한국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하다.



김영환 장로
(길공동체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고맥락 언어와 저맥락 언어

칠레 남부 지역 ‘야간족’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마밀라피나타파이(Mamihlapinatapai)’가 있다. 이 단어는 간단히 설명하기 힘들다. 길게 설명해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뜻을 굳이 설명하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이 나서서 감당하기는 싫고,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긴급하게 오가는 미묘한 눈빛’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조별 과제를 할 때 누가 조장이 될 것인지를 정하는 때 분위기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야간족에서 살면 누구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말하지 않는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감각이 그 어느 사회보다 많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매우 무례한 사람 혹은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도로 취급될 것이다. 필요한 게 있어도 철저히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기까지 기다리는 게 그 종족의 전통이고 관습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문화일수록 그 사회를 ‘고맥락 사회’라고 분류한다. 고맥락 사회에서는 고맥락 의사소통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수많은 제스처와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 발달되어 있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고맥락 언어

를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고 익숙해진 방식이다. 고맥락 사회에서 ‘마밀라피나타파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무엇이려 서로 여기며 살아간다.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짐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관계’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눈치가 빠를수록 유능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다.

고맥락 문화와 비교되는 문화가 저맥락 문화다. 저맥락 문화에서 소통은 단어와 사실적인 표현 위주로 이루어진다. 집단보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맥락 문화에서는 돌려서 말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불편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그렇게 표현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다. 고맥락 문화와 고맥락 언어를 하루아침에 습득하지 않은 것처럼, 저맥락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저맥락 언어를 습득하지 않는다. 정말 오랜 시간, 세대를 거치면서 습득한 문화이자 언어 스타일이다.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스타일에 대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저맥락 문화에서 ‘마밀라피나타파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몹시 어려울 것이다.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

이 “알아서 해줘”라는 눈빛을 보내는 고맥락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고맥락 문화에서 살게 된다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메시지와 제스처를 학습해야 할 것이다. 저맥락 문화에서 살게 된다면 그 문화 분위기에 맞는 언어를 익혀야 할 것이다. 물론 둘 다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당신의 부부 사이에서는 어떠한가? “내 배우자는 퇴근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소파에만 누워있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내가 분노의 눈빛을 보내도 전혀 몰라요”, “내 배우자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몰라요”, “눈치가 전혀 없어서 이제는 포기 상태예요!”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다. 말해도 전혀 듣지 않고, 눈빛을 수없이 보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것까지 말해야 하나?”, “이런 것도 몰라주는 당신이 원망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부 사이에 고맥락 언어가 계속해서 오작동 된다고 할 수 있다. 연애 때는 부부 사이에 고맥락 언어가 문제없이 사용되었더라도, 차츰 저맥락 언어와 고맥락 언어를 오가면서 사용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고맥락 언어와 저맥락 언어를 두고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쌓아온 전통과 문화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살아온 배경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자랐던 환경

이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속마음이나 기대를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만일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표현 방식에서 잦은 충돌을 경험할 것이다. 나의 방식도 수정하고, 상대방의 표현 방식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절충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 깊은 결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 ‘마밀라피나타파이’와 같은 고맥락 언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필요를 읽고 자신해서 배우자의 마음에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뜻하지 않는 선물 등의 형태로 배우자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적절히 상대의 필요를 읽을 수 있는 관계의 센스도 익히고, 자신의 필요와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는 자세도 연습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벤전 3:8~9).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3

431명의 미디어 사역자 참석



지난 5월 29일 열린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3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가 모여 미디어 전략을 나누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지난 5월 29일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3’이 더케이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431명의 미디어 사역자, 목사, 신학생 등이 참석했다.

콘퍼런스는 이인용 상근고문(삼성전자)의 ‘관계와 소통, 그리고 미디어’, 데이비드 전 대표(DMLab, AI업체)의 ‘AI, 미래 사회 그리고 기독교 전망’, 바비 그루왈드 목사(라이프처치, 유버전 대표)의 ‘4C 및 온라인 교회 활용 사례’, 이재훈

담임목사의 ‘AI 시대의 목회와 4C 전략’을 주제로 4개의 메인 강연과 질의응답, 기독 OTT 풍당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강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오늘날 미디어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하다”면서 “4C(Content, Cloud, Care, Community)를 활용해 Content는 Cloud에서 Care는 Community에서 하며 풍당을 통해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AI 시대를 주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문성주 목사(글로벌비전교회)는 “풍당을 통해서 공유 목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면서 “풍당을 통해 AI 시대의 목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콘퍼런스

NGO 더멋진세상, 앰블런스 13대 및 의약품 기증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가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는 우크라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나 지원과 전후복구 사업을 위한 ‘한-우 민관합동위원회(단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 참석한 김광동 대표는 NGO 더멋진세상, 부산소방방재청, 적십자사 등이 협력하여 준비한 앰블런스 13대와 의약품 등 15억 상당의 난민 구호 활동 용품을 우크라이나 국회부의장에게 기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만나하우스 개관

만나하우스가 개관한다. 보육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청년을 위한 무료급식소다. 오는 6월 11일 화국 만나하우스(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3길 27, 화국한울에이치벨리움 B동 B1호)에서 만나하우스 개관예배를 드린다. 만나하우스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보호종료아동 및 보육

원 아동 지원사역팀)과 사단법인 위키코리아(위기청소년선교사역, 임귀복 목사)의 연합사역이다.

오창화 집사(선한울타리사역팀장)는 “만나하우스와 선한울타리센터(위기청년 보호 숙소)가 더 열심히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청년들을 보살피고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40대 이상 미혼기독교 청년 결혼문화세미나

40대 이상 미혼기독교청년을 위한 결혼세미나 ‘지중해(지금도 중요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2층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세나 산부인과 전문의, 송흥섭 산부인과 전문의, 강미향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다음카페 ‘5060부모교실(cafe.daum.net/5060parent)’이나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5628-8872



화성M센터, 찬양 유튜브 채널 개설

화성M센터가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 ‘Friendship of Asia People’ (이하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채널)을 개설했다. 매주 각 선교지 언어로 된 찬양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몽골, 네팔 언어로 된 찬양 40여 개를 업로드 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채널을 구독하면 매주 업로드 되는 다양한 선교지 언어 찬양을 확인할 수 있다. 채널에 업로드 된 찬양을 이주민들에게 공유하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와 경북 밀양의 시골교회에서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캄보디아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장로수련회 개최

6월 9~10일, 온누리교회 장로 250여 명 참석

2023 장로수련회를 개최한다. 6월 9일(금)과 10일(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다. 장로수련회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을 위한 쉼과 힐링, 친목도모와 비전 함양의 장(場)이다. 온누리교회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장로수련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열방을 향한 축복’을 주제로 세계복음주의운동의 흐름과 4차 로잔대회 의의, 데이비드 전 대표가 ‘미래를 향한 축복’을 주제로 AI 시대 교회의 역할과 전망을 강의할 예정이다. 조별 나눔과 사역모범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 정현주 기자

부모 46명 세례!

행복드림콘서트 세례식

60세 이상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이 지난 5월 28일(일) 서빙고온누리

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진행됐다. 이날 부모 46명이 세례 받고 천국 시민이 됐다.

■ 간증

모든 순간이 감동!

딸이 어버이날에 근사한 식사를 예약했다면서 행복드림콘서트에 초대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 종교를 바꿀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다. 2년 전, 아내의 소원으로 위기를 맞았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힘든 시간을 가져야 했다. 딸이 먼저 찾아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며 복음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행복드림콘서트에 초청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다. 그 모습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마치 천국에 들어서는 느낌이었다. 스테프들의 섬김, 맛있는 식사, 간증과 찬

양,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로 진행된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다. 특히 딸이 준비한 꽃과 선물, 감동의 편지는 억눌렀던 눈물샘이 터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에 믿겨지는 은혜를 따라 더 깊이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이 시간을 통해 아들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 날마다 더욱 더 주님을 알기 원한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신 주님 손을 잡고,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내 삶을 인도해주실 것을 믿는다. 나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 이재진 어르신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 서빙고

문의: 010-3797-3684

아제르바이잔(아사모)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꿈터
문의: 010-9976-3100

샬롬 이스라엘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시온홀
문의: 010-3797-3684

인도 기도모임

격주 월요일 오후 9시
문의: 010-4516-4710

남아시아 기도모임

매달 1회(월)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3797-3684

몽골(아동) 기도모임

온라인(매주 월요일),
대면(매달 1회)
문의: 010-9471-0759

파키스탄 기도모임

매달 둘째, 넷째주 토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3797-3684

방글라데시 기도모임

매달 셋째 주일 오후 4시
문의: 010-2944-8123

아랍과 페르시아 기도모임

분기별 1회 주일 오후 3시 B102호
문의: 010-3797-3684

일본 기도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010-9349-5631

- 양재

다문화 차세대선교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JDS홀
문의: 010-6422-8376

소아시아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온라인
문의: 010-3797-3684

베트남 기도모임

매달 1회
문의: 010-3797-3684

터키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문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로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원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현충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언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업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를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nisaitsai Chuoi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성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	--	--	--	--	---	--

섬기는 분들 ●담당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진재 김성욱 김성용 김승검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희정 김종민 김종아 김홍조 김창호 김태용 김태안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량만홍 문영재 박근빈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천중 박형준 배형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식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조재호 신기섭 신경순 신원식 스티브라 안사뮈엘 양성민 양재경 유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희아 유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진 장재원 장병선 전진식 전 진 전재표 정병선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현권 정호성 제치훈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명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순 최재훈 최형준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재 김태광 민근홍 신대중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택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해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함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용삼 김은하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 新美善 매주영 박씨마 백승현 비 킵 서우열 생아메노 사가르 에리카미클스톨츠 월리언 이만영 아이라르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윤치연 제인랑 존레아 체제미 최정현 허효경 황연식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권여림 김기희 김다석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 김반석 김영선 김예찬 김윤아 김외연 김종균 김주영 김정무 김지선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지현 김현경 남 해 민하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민 박세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미리 방예린 배명지 배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환 신새벽 신주홍 심은섭 안루택 양현도 엄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은혜 유석부 유종연 윤혜진 이나난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은기 이소라 이시하라 이로이 이상은 이진수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병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성원 정성민 정희애 정은영 정연영 정우영 정희애 정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석 최규정 최진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태재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삼 권영환 권철준 권영선 김경철 김광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석진 김성준 김수웅 김용성 김원균 김이곤 김종진 김진국 김하중 노재한 문창호 문형남 박상송 박영대 박영대 박대성 배 문 배준희 송만석 송일석 신영자 신재우 안성영 양유식 오성원 유광방 유병훈 윤기훈 윤영오 이근재 이국주 이만식 이영걸 이영세 이우근 이재경 이재준 이창남 이현조 이화영 장형준 정강무 정대서 정병교 정봉민 정희태 정진하 정수갑 조희태 차준구 차준한 최득근 최정규 최창규 최장수 권무호 한백진 함공기 홍정표 황재규 김영철 김선재 김승열 김 웅 김원중 김원숙 김진하 김현철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호 박 공 박성국 박성진 박종현 박찬민 박성웅 박성진 박성진 박성진
---	--	---	--	--	---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정기구독 상담
 인원 1명, 해외저작권 업무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
 (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유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헌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헌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답
오답

새끼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성격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등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은누리상당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서무 상담: 월~토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5/25(목) 과천의왕 최승혜 권사 모친상 고 정복실
5/26(금) 강남B 지상원 성도 모친상 고 김정례
5/28(주일) 강남B 홍윤실 성도 시모상 고 강월계
5/28(주일) 양지온누리교회 고 이병현 장로
5/29(월) 고양은평 이경화 집사 모친상, 이영출 집사
빙모상 고 송애순

5/29(월) 분당A 최경순 권사 모친상 고 윤혜숙
5/29(월) 브릿지33 문병철 성도 부친상 고 문정주
5/29(월) 서초B 고 강은정 집사
5/30(화) 경기A 서광열 집사 모친상 고 김포남
5/30(화) 서초B 이경아 성도 모친상 고 김복규
5/30(화) 일본어예배 나문재 선교사 모친상 고 정
5/31(수) 마포 김수진 집사 부친상 고 김민웅
5/31(수) 강남A 김태현 성도 모친상 고 정금자
6/1(목) 고양은평 오재필 선교사 부친상, 김효심
선교사 시부상 고 오명호
6/1(목) 중종로 이보윤 성도 부친상, 안은주 성도
시부상 고 이성진